

2. 국내 금융교육 현황 및 평가

- 우리는 학교교육과 함께 금융교육협의회*를 중심으로 금감원, 금융권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중

* 금융위 부위원장(長), 기재부 등 6개 부처, 금감원, 금융권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, 금융교육 관련 정책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(반기마다 개최)

- (학교교육) '금융'이 별도 교과목이 아니며, 금융 관련 내용이 사회, 실과, 기술·가정, 통합사회 등 여러 과목 교과서에 서술
- (민간교육) 청소년(1社1校*), 대학생(실용금융 강좌), 사회초년생(재무설계), 노년층(노후설계) 등 약 95만명('18)에 맞춤형 교육 제공

*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(초·중·고교의 62%, 약 7천여개, '18)

- 금융교육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되어져 왔으나 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

- 현행 교육이 고령층,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겪는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

→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'18.12월~'19.3월까지 “민·관합동 금융교육 TF”를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

* 학계·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위, 금감원, 금융권 연구원 등이 참여

< 금융교육 TF에서 제기된 외부전문가 의견 주요 내용 >

-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
- 생애주기별 필요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
- 정규 교과과정(의무교육)을 통해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
- 교육 콘텐츠, 강사 역량, 전달방식 등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

3. 향후 계획

- 금년 8월~10월, 민간기관을 통해 “금융교육 실태조사”를 실시

- 조사대상을 일반 국민, 교육경험자, 교육주체로 세분화하여 현행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, 교육수요 등을 파악

- 금융교육의 체계화·효율화를 위한 「금융교육 종합방안」 마련(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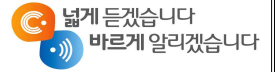
-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수요 및 그에 따른 중장기 교육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

- 특히, 고령층의 디지털 환경 적응, 청소년의 금융사기 등 불법 금융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중점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